

俛宇 郭鍾錫의 당대 대응과 인식론적 基底*

이택동**

〈차 례〉

1. 들어가며
2. 당대대응의 몇 국면
 - 1) 抗日 起義에 대한 遠慮
 - 2) 事勢 變轉을 위한 勉勵
3. 면우 당대대응의 인식론적 基底
4. 마치며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근세기를 살아간 면우 곽종석을 대상으로 시대와 조우하며 피어난 내면의 흔들림과 頹頽에 대해 섬세하게 검토하며 그 의의를 고구한다. 검토 결과 몸담은 시대 상황에 대한 면우의 대응은, 당대 유럽의 일반적인 자장과는 변별되는 자못 이채로운 국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곧 당대에 대한 면우의 진단과 해법은 ‘自靖論’에 수렴된다 하겠는데, 이 글에서는 면우의 현실 대응의 몇 국면을 살피고 그 의의를 점검한다. 동일한 시대 정황에 노출된 당대 인물들의 대응 양태는 저마다의 사유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데, 거칠게 요약하자면 향산 이만도의 경우에는 起義와 自盡을 선택하며 적극적으로 응전하고 있었으며 회당 장석영의 경우에는 망명객으로서의 온갖 신산스러움을 감내하며 광복을 위한 투신을 결행했음에 비해 면우의 대응은 이와는 구별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었다.

물론 전통 사회에서도 出仕에 소극적인 儒者를 드물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비단 가파른 정치 현실에 대한 거리 두기 때문만이 아니라 온축한 경륜을 당대에

* 본 연구는 200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국한하여 현실화하는 것보다 ‘立言垂後’ 하는 것이 보다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면우의 예에서와 같이 國體나 社稷마저도 부차적일 수 있다는 이해가 피력되는 것은 단연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물론 어느 누구나 자신의 全存在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경우는 있지 않다. 향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伏劍’하거나 ‘飲毒’하지 않고 절식하여 自盡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정황에서 면우는 ‘附日’은 하지 않고 면려하여 自靖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면우는 국가나 사직과는 대단히 ‘느슨하게’ 묶여 있는 형국이라 하겠는데 근세기 전통적인 지성의 당대 대응 중 단연 이채로운 양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어 | 自靖, 抗日, 전통적 지성, 망명, 附日

1. 들어가며

필자는 최근 일련의 논문을 통해 근세기, 전통적 지성의 당대 대응에 대해 살피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바,¹⁾ 이 글 역시 그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俚字 郭鍾錫은 한주 이진상의 고제로 한말 성리학의 대미를 장식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²⁾ 거개의 당대 유림들

1) 줄고, 『起岩 李中業論』, 한국고전연구 제 1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191면 -- 217면.

줄고 『晦堂 張錫英論』, 한국고전연구 제 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31면 -- 56면.

줄고, 『響山 李晚燾論』,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4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75면 -- 98면.

2) 필자는 연전에 회당 장석영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펼친 바 있는데, 면우가 회당의 동도이니 만큼, 본고는 종전의 회당읽기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촉발되었음을 밝힌다. 그러므로 본고는 근세기 유림의 당대 읽기의 양상을 살피는 거시적인 기획에서 우선적으로 영남권 내부에서 분지를 이룬 양대축이라 할 금계학과와 한주학파를 검토하는 과정의 한 일환임을 밝힌다.

이 학적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암 최익현과 더불어 상당한 정도로 연구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侂宇論에 유념하며 종전의 평가에서 감당하지 못한 한 두 국면에 집중하여 면우를 검토하며 그 의미를 정돈하려 한다.

통상 전통 사회를 살아간 지식인의 경우 그들의 사유와 인식을 살피는 첩경은 시승관계나 혼맥 혹은 당색에 유념하며 그 특징적인 국면을 재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시각에 기반한 접근에는 문제가 아주 없지는 않다. 이 글에서 검토할 면우의 경우에도 회당 장석영이나 대계 이승희와 함께 한주의 문하에서 수업했음에도 대계는 공자교에 경도되어 공자교를 우리나라에 착근하려는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한 인물로 평가되는 반면³⁾ 회당 장석영은 두툼한 편폭으로 강유위에게 공자교를 매도하는 서신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계는 실천적으로 항일에 투신하고 있음에 비해 본론을 통해 확인되겠지만 면우는 무력에 의지한 항일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시종하고 있다.

사정이 그러하므로 특정 시승 계열이나 당색 등으로 얽혀 있는 인물들을 두고 그들의 공분모에 주목하여 의의를 고구하는 작업은 물론 그것대로 의미를 지니지만 개개인의 편차와 개성을 검토하는 작업 역시 요청된다 하겠는데 본고는 이점에 유의하며 논의를 펼치려 한다. 면우의 제자이자 사위인 회봉 하겸진이 면우 행장의 대미에서 밝히고 있듯이 면우의 삶은 요약하자면 朝鮮朝 理學史의 막바지에 솟아오른 거봉으로서의 의의가 가장 다대하다.

3) 대계의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살필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대계에 대한 이해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 홍원식, 『한국 근현대와 유학 : 한국 공자교 운동과 이승희』, 공자학 3권, 한국공자학회, 1998. 177면 -- 198면.

하늘이 선생을 내신 것은, 장차 선생으로써 우리 동방 오백년 儒門의 종국으로 삼으려 한 것인가 선생으로 하여금 마침내는 기필코 회복될 조짐으로 삼으려 한 것인가. 나는 이 때문에 하늘의 뜻이 斯道를 잊지 않았음을 안다(先生天所生也, 其將以先生爲吾邦五百年儒門之結局, 又將以先生爲千秋必返之兆朕, 吾以是而知天意之不忘斯道也).⁴⁾

행장에서 진술된 회봉의 언명을 통해 확인되듯이 면우는 걸출한 성취를 보인 근세기 유림의 종장이었다. 면우에게 관건적인 일은 한주학이었던 바 主理에 대한 보위는 스승인 한주나 동도인 회당의 언명을 통해서도 부지기수로 확인된다.⁵⁾ 사정이 이러하기에, 근세기 문인이나 학인에 대한 학적 조망이 영성한 가운데 유독 한주나 면우의 이학사적 성취나 위상에 대한 논의는 적지 않게 제출되고 있다.⁶⁾ 면우의 당대에 대한 대응양상에 관한 논의도 주목에 값하는 논고가 적지 않은 바, 면우의 객관적인 이력을 재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논의도 있으며⁷⁾ 당대 대응과 관련한 면우의 내면 읽기에도 관심이 할애되고 있다.⁸⁾ 본고에서는 기존

4) 「侂字郭先生行狀」. 이 글은 河謙鎭의 문집인 『晦峯先生遺書』 중 卷之四十七에 수록되어 있는 바, 인용 면수는 아세아문화사의 영인본이다. 한국학문헌연구소편, 『晦峯集下』, 아세아문화사, 1985. 409면 참조.

5) ‘主理 두 글자로 우리 학문의 명백한 종지이다(以主理二字爲吾學不貳之旨)’(「면우 광선생행장」, 396면 참조) 등과 같은 언명은 한주와 면우 그리고 회당의 문집 도처에서 확인된다. 주리설을 보위하고 송대 이학을 존신하는 회당의 분투에 대해서는 줄고를 통해서도 간략히 검토한 바 있다.(줄고, 「회당 장식영문」, 앞의 논문. 33면 -- 41면 참조.)

6) 2001년에 이미 이들에 관한 논문 20편이 한국사상논문선집에 실려 있을 정도이다.(편집부 편, 『한국사상논문선집(185)』, 불함문화사, 2001.)

7) 설석규, 「면우 광종석의 정치철학과 國權恢復 방향」, 남명학연구 제 28집, 2009. 95면 -- 140면 참조.

8) 최영성, 「한국 유학사에서 면우 광종석의 위상」, 남명학 연구 제 27집. 특히 현실대응과 유림단 사건(16면 -- 23면)에서 그 대강이 소개되고 있다.

논의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면우 내면의 흔들림과 頹頹에 대해 좀더 섬세하게 검토하며 그 의의를 탐사하도록 한다. 후술되겠지만 몸담은 시대 상황에 대한 면우의 대응은, 당대 유림의 일반적인 자장과는 변별되는 자못 이채로운 국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당대에 대한 면우의 진단과 해법은 ‘自靖論’에 수렴된다 하겠는데, 이 글에서는 면우의 현실 대응의 몇 국면을 살피고 그 의의를 점검하려 한다. 동일한 시대 정황에 노출된 당대 인물들의 대응 양태는 저마다의 사유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데, 거칠게 요약하자면 향산 이만도의 경우에는 起義와 自盡을 선택하며 적극적으로 응전하고 있었으며⁹⁾ 회당 장석영의 경우에는 망명객으로서의 온갖 신산스러움을 감내하며 광복을 위한 투신을 결행했음은¹⁰⁾ 줄고를 통해 그 대강을 살핀 바 있는데 본고는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당대대응의 몇 국면

1) 抗日 起義에 대한 遠慮

면우의 생평에서 시대적인 상황과 맞닥뜨리며 불거진 문제적인 대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었는데 을미년과 을사년의 起義에의 참여 권유 거절, 1908년 동학인 이승희의 망명 제의 거절, 그리고 합방을 즈음한 시기의 태도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고종 승하 시 복상을 둘러싼 유림 내부의 편차와 이에 대한 면우의 대응도 주목을 요한다. 이와 함께 몰락의 목전에 둔 조선 왕조의 갱장을 위한 면우의 분투에 대해서도 그 경과를 추적

9) 줄고, 『響山 李晚燾論』, 앞의 논문. 75면 -- 98면 참조.

10) 줄고, 『회당 장석영론』, 앞의 논문. 49면 -- 53면 참조.

하려 한다. 이 절에서는 먼저 일제의 침탈에 대한 면우의 대응 양태를 살피고 그 의미를 검토하기로 한다.

면우가 자신의 처세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된 첫 번째 이력은 을미년의 기의를 경과하면서의 처신이었다. 기실 국모가 시해된 을미변란은 조야를 막론하고 심원한 충격에 휩싸이게 한 일대 정변이었다. 왕조 국가에서 국모가, 다른 장소도 아닌 대궐 안에서 타국의 무뢰배들에게 죽임을 당한 일은 조선 왕조의 조종을 선연하게 확인케 하는 증좌이기도 하였으니 당대 유림들이 받은 상처와 충격의 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따라서 거국적으로 무력에 기댄 응전이 들불처럼 번졌던 것이 가감없는 당대의 정황이었다. 遺疏를 통한 響山의 회한에서도 확인되듯이¹¹⁾ 을미변란은 당대 유림들에게 관건적인 트라우마로 삶 전체를 통어한 골레로 작용하였던 바, 이에 대한 면우의 대응은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당대 유림 일반의 반응과는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문인인 회봉이 작성한 행장을 통해 그 전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1895년 을미년) 賊臣들이 권세를 휘두르고 이웃 나라들은 틈을 엿보는데, 팔월에 왜병들이 범궐하여 명성황후가 시해되었고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播遷하였다. 겨울에 향리의 인사들이 의병을 일으켜 적신들을 토벌할 것을 주장하며 선생에게 일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였다. 선생은 생각하기에 무기가 없는 布衣들이 유위로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서신으로 사양하고 뜻을 함께 하는 이들과 한양에 가 글을 지어 각국의 공관에 포고하여 온 천하에 대의를 밝혔으니 병신년 삼월이었다(是時賊臣當國, 而隣國窺弊, 八月倭兵犯闕, 明成后被弑, 大駕播遷于俄陣, 冬鄉人士起義旅, 聲言討賊, 要先生共事, 先生度量, 知其布衣無兵, 不可以有爲也, 以書遜謝, 遂與同志數人, 往京師, 爲文布告列國公館, 以明大義於天下, 是丙申三月也).¹²⁾

11) 졸고, 「響山 李晚燾論」, 앞의 논문. 75면 -- 98면 참조.

행장에서 확인되는 면우의 대응은 일견하는 것으로도 당대 유림의 격양과는 편차를 보이고 있다. 면우는 관직에 있지 않은 일개 布衣之士로서 별다른 무기도 없으니 유위로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으로 起義에의 동참을 거절한다. 당시 안동에서 기의를 주도한 권세연이 합류를 권하는 제안에 대해서 ‘(거병에) 참여하여 패하는 것이 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然入而後敗, 不如未敗而自靖也)’¹³⁾라고 답하고 있으니, 따라 읽는 우리들이 의외라고 느낄 정도로 분석적이고 차분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기의를 이끈 인물들이라고 하여 승산을 확신하고 거병한 것을 아니었을 터, 면우의 절제된 대응은 단연 예외적인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렇다고 하여 물론 당대의 정황을 방관한 것만은 아니었으니 布告文을 작성하여 열국의 공관에 일본에 의해 자행된 만행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있는 바, 면우의 이러한 대응은 유림 내부에서 숭한 지탄의 빌미가 되기에 이른다. 면우는 이때부터 쏟아지는 唾罵에 스스로 세상과의 격절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저는 서행에서 돌아온 이래 사람들의 타매를 받아 이미 세상과 섞일 수 없게 되어 숲 사이에서 사슴과 짝하는 것을 스스로의 분수로 여기며 구차히 이 삶을 살아갈 뿐이니 다시금 무슨 일이 있어 별다른 거취를 지어내겠습니까(然鍾自西行以還, 積受人唾罵, 已不齒於世矣, 自分爲鹿侶於林間, 以苟度此生而已, 更有何事別作去就耶).¹⁴⁾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은 체념이나 회한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12) 『侂宇郭先生行狀』, 397면.

13) <與權祖淵 世淵○乙未>, 『侂宇先生文集卷之二十一』, (한국문집총간 340권. 365면.)

14) <答李器汝 丙申>, 『侂宇先生文集卷之二十』, (한국문집총간 340권. 381면.)

정도로 문집 곳곳에서 빈출하고 있다. 세인들에게 매도의 대상이 되었기에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된 자신의 정황을 음울하게 진단하며 구차스럽게 삶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뿐 사회 속에서 유위로운 일은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저러한 발화는 비단 민비시해를 경과한 즈음만이 아니라 을사보호조약이나 한일합방을 경과하면서도 비슷한 정조로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사회적인 자아로서의 면우는, 일제 침탈에 대한 유럽 일반의 대응과는 다른 자신의 선택 때문에 불거진 세간의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러한 타매에 대한 자탄은 의례적인 套式에 불과하며 면우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긍하고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즈음에 宋旼翼에게 보낸 답신에서는 당대를 바라보는 면우의 내심이 피력되어 있어 그 심중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으니 먼저 살핀다.

시대의 정황은 운위할 수도 없지만, 지금 다행히도 머리 깎은 오랑캐 되는 것은 면하였으니 다만 마땅히 이치와 의리를 더더욱 강론하고 더더욱 동지들을 격려하며 천운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뿐 나머지 일이야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時象不須言, 今幸而免爲髡虜矣, 只當益講理義, 益勵同志, 以俟夫皓天之復而已, 自餘不必預虞也).¹⁵⁾

당면한 참변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다고 하여 당대적 정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오랑캐가 되는 참상만은 면하게 되었다며 안도하고 있는 모습도 내보이고 있다. 당대에 불거진 파란의 위중함을 뚜렷이 인식하면서도, 의리를 강론하고 동도들을 면려하는 등 근본에 충실하며 時運이 되돌려지기를 바랄 뿐이라는 소회를 드러내고 있

15) <答宋致車 旼翼○丙申>, 『侁宇先生文集卷之二十四』, (한국문집총간 340권, 432면.)

는 것이다. 달리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은인자중하는 면모를 확인케 한다 하겠는데 전통적인 의리를 부잡아 면려하며 부동심을 견결히 유지하기를 바라는 근본주의적인 시각에 기반한 인식틀인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점에서 余仲陽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당대에 대한 면우의 인식이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근본주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起義에 대해 불편해 하는 시선도 노출하고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니 아울러 살피기로 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제각각 간직한 의리나 본성이 있어 억지로 같게 하여 일률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을의 의병은 처음에는 빛나고 늠름하였지만 중국에는 쇠퇴하여 흩어져 달아나 숨었으니 과연 이론 바가 어떠한 것입니까. 저와 같이 졸렬하고 무능한 사람은 먼저 自靖하기를 도모하였는데 또한 의리가 없다고 이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義라는 것은 마땅함인데 다른 이에게 마땅하고 자신에게는 마땅하지 않으며 명분에는 마땅하고 실상에는 마땅하지 않으며 일에는 마땅하고 때에는 마땅하지 않다면 義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찌 터무니 없이 행동하여 낭패를 자초함에 그치고 말겠습니까. --- 사람들의 구설에 내 마음을 어지럽힐 까닭이 없습니다(然而人各有秉執, 不可強同而一之也. 鄉之義旅, 其始也若炳然凜然, 其終也委靡頹散, 奔走鼠竄, 果何所就哉. 如鍾之拙劣無能, 先事自靖, 亦未可謂非義也. 義者宜也, 宜於人而不宜於我, 宜於名而不宜於實, 宜於事而不宜於時, 則非義之善者也, 豈可進退無據, 自取狼貝而已哉. --- 不必以人之嘵嘵, 撓亂我方寸也).¹⁶⁾

해당 서신에서는 원론적인 인식이 완곡하게 피력된 앞 글과는 달리 내면의 소회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내면화된 신념은 저마다 다른 바(各

16) <答余仲陽 丙申>, 『侂宇先生文集卷之九十七』, (한국문집총간 342권, 444면.)

有秉執), ‘억지로 같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할 수는 없다는(不可強同而一之)’ 면우의 인식은 을미정변이라는 폭력을 경과한 당대적 상황에서는 이 채롭다 할 정도로 객관적이며 냉철한 인식을 보여 준다. 거국적으로 일어난 기의가 당초에는 대오가 늠름하였으나 일시적인 충동에서 촉발되었으니 쥐처럼 흩어져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냉소적인 낙양스도 없지 않은 듯 한데 준비되지 않은 擧義로 敗頹를 자초하였다는 것이 민비 시해를 경과하고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간 당대 의병에 대한 면우의 진단이자 평가인 것이다. 이에 ‘사람마다 간직한 본성은 저마다 달라 억지로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다며’ 자신의 신념에 반해 부회뇌동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글을 통해 당대 기의에 대한 면우의 부정적인 진단과 그러한 진단을 가능케 한 심층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우는 이와 같이 확고한 주견에서 선택한 당대 대응이기에 세간의 구설에 대해서도 마음 쓸 까닭이 없다는 의연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세상의 唾罵에 대한 회한은 한낱 套式이었음을 이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면우의 인식이 이와 같으니 1908년 한주의 자제이자 함께 琢磨한知己인 이승희가 遼地로의 망명을 결행하고 함께 하기를 수차례 권유하는데도 ‘여정이 험난하여 갈 수 없다 여기고 그친(先生知路梗不可往遂止)’¹⁷⁾ 이력이나 1912년 장석영의 망명에도 함께 하지 않은 결정이¹⁸⁾ 면우의 논리에서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고 이해될 수 있겠다.

당대를 바라보는 면우의 이러한 인식은 보다 심원한 층위에서의 고뇌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서신에서는, 堯

17) 『侁宇郭先生行狀』,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409면.

18) <書張舜華遼左記行後 壬子>, 『侁宇先生文集卷之百四十二』.(한국문집총간 344권. 55면.)

舜 이래 여러 성현의 덕화가 빛나는 중국도 오랑캐의 被奪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¹⁹⁾ 그렇다면 국운이 백척간두에 선 당대적인 정황도, 역사상의 술한 왕조의 명멸과 부침을 고려한다면 불행한 일이지는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란 인식이 면우 내면의 심층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한 인식이 내면 깊숙이 자리하기에 ‘우리 동방에 오늘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것도 또한 때가 그러한 것일 뿐이라는(吾東之有今日, 亦其時然爾),²⁰⁾ 충격적인 사변을 목도하고 그것을 객관화할 시간적인 거리가 확보되기 이전의 인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냉철하게 당대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면우 읽기가 오독이 아니라면 면우에게는 나라나 社稷도 부차적인 고려 대상일 뿐이니 미리 말하자면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도는 망할 수 없다는(蓋國可亡也, 道不可亡也)’ 그의 언명은 바로 저러한 심원한 인식이 언표화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우리는 이미 지난 논의에서, 회당 장석영도 그토록 논박을 가하던 공자교나 공화제마저도 程朱를 존신하기만 하면 수긍할 수 있다는 이해를 제출하고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²¹⁾ 회당과 마찬가지로 면우도 당연히, 사직이나 국가조차도 상대화하며 보위하려는 대상은 程朱의 主理일 것이다. 그렇다면 회당과 면우는 인식론적인 기저에서 程朱에 대한 존신은 공유하며, 누란의 위기에 처한 당대 대응에서는 회당은 그럼에도 몸을 던져 사직을 구해야 한다는 노선을, 면우는 사직의 존망도 부차적인 고려 대상으로 인식하며 吾道를 보위해야 한다는 노선을 각각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주 문하에서의

19) 神州奧區, 乃堯舜以來群聖振靈炳德之地, 而猶且有胡羯遼金之厄, 而竟至元清而極矣.(〈答李景載 德厚○丙申〉, 『侂宇先生文集卷之四十』.(한국문집총간 341권. 161면.))

20) 〈答李景載 德厚○丙申〉, 『侂宇先生文集卷之四十』.(한국문집총간 341권. 161면.)

21) 즐고, 『晦堂 張錫英論』, 앞의 논문. 35면 -- 37면 참조.

당대 대응의 엇갈림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면우의 이러한 인식을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가. 잠정적으로 당대인들의 현 결찬 우국충절은 물론 그것대로 현양되어야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국가의 몫이나 비중을 상대화하고 있는 면우적인 이해에 대해서도 차분히 그 공과를 되짚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면우의 인식과 당대 대응이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쉬 납득되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이었던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살핀 바 을미변란을 경과하며 보인 면우의 대응양태나 인식은 을사조약과 경술국치를 조우하면서도 관철되고 있는 바, 을사조약을 경과한 1906년에 최익현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진실로 종사와 만백성의 존망과 화복이 한 때의 망령된 행동에 관계됨이 있기 때문에(誠以宗社生靈之存亡禍福, 有關於一時之妄動耳)’²²⁾ 분별없이 기의하여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君父에게 재앙을 재촉하거나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지 않으려(亦不敢以力量之所不逮者而促禍於君父, 貽毒於生靈)’²³⁾ 한다는 이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을사년의 기의를 군주에게는 재앙을 재촉하고 생민들에게는 해독을 끼치는 ‘妄動’으로 관념하고 있으니 내면화한 평정심의 심도를 능히 짐작할 수 있겠다.

이 절의 논의를 통해 확인되는 면우는 일제의 침탈이라는 직접적인 충격에도 달리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견결히 부동심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림들의 타매에도 자신이 택한 길의 정당성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흥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기의는 중국에는 쥐떼처럼 흩어지는 패퇴로 귀결된, 군왕이나 생민들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한 ‘妄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왕조의 부침은 역사 일반의 상례이니 몸

22) <答崔贊政>, 『侁宇先生文集卷之十九』, (한국문집총간 340권, 365면.)

23) <答崔贊政 益鉉○丙午>, 『侁宇先生文集卷之十九』, (한국문집총간 340권, 365면.)

담은 사직의 조락도 상정 못할 일은 아니라는 심사도 토로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작금의 정황도 이러한 때가 스스로 이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本然之理를 따르지 않고 이적과 금수의 행태를 즐겨 좇았기 때문이란(時非自致, 時人之不循夫本然之理, 而樂趣於夷狄禽獸之行焉爾)’²⁴⁾ 진단도 제출되고 있으니 ‘本然之理’에 충실하지는 곧 근본에 충실하지는 심원한 층위에서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事勢 變轉을 위한 勉勵

회봉이 작성한 면주의 행장에서 단연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는 고종 승하를 경과하며 服喪과 관련된 시비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다. 통상 우리는 삼일운동이 고종 인산일을 계기로 폭발한, 전국민이 대동 단결하여 극악무도한 일제에 항거한 쾌거로 알고 있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이해는 당대의 실상과 부합할 것임도 분명하다. 그런데 해당 대목은 우리에게는 생경하다고 할 정도의 양태를 확인케 하는데 그 경과를 살피도록 한다.

무오년에 태황제가 승하하였다. --- 당대의 사류들은 혹자는 태황제를 나라를 멸망케 한 군주라 하여 복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며 혹자는 舊君이라 여겨 삼개월 복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등 논의가 분분하였다(戊午 太皇帝昇遐, --- 一時士流, 或以爲 太皇亡國之君, 不當服者, 或以爲當爲舊君服三月者, 論議紛然).²⁵⁾

행장에 따르면 고종이 승하한 직후 유림 일각에서는 고종이 ‘망국지군’ 이기에 복상할 의리가 없다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다. 다른 한편, 보다 문

24) <答李景載 德厚○丙申>, 『侂宇先生文集卷之四十』.(한국문집총간 341권. 161면.)

25) 『侂宇郭先生行狀』,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405면.

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측면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종이 ‘군주’이기에 삼개월만 服喪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오백년을 이어온 왕업을 몰락에 이르게 한 군주이니 禮葬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견해인 바, 고종의 인상을 계기로 거국적으로 독립운동의 불길이 일었다는, 우리에게 통념화된 당대 이해로는 쉽게 수긍되지 않을 인식틀이라 하겠다.

삼개월 복상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는, 당대 한반도의 政體로 자리하고 있는 조선 총독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주목을 요한다. 춘추 전국 시대처럼 여러 제후가 할거하며, 각국의 인재들이 여러 제후국으로 옮겨 다니며 벼슬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던 경우, 입사했던 제후국에서 다른 제후국으로 옮겼을 때, 이전에 벼슬했던 제후가 서거하면 삼개월 복상을 하였다고 한다. 저러한 경우를 고종 승하에 대입하고 있는 입론은 이미 조선 총독부의 정통성을 용인하고 있었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이다.²⁶⁾ 유럽 일각에서 제출된 이러한 이해에 대한 면우의 논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엄하다.

선생이 말하기를 太皇帝가 백성들을 다스린 사십여 년간 백성들은 그 비호를 받지 않음이 없었는데 멸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신민의 군주임은 분명하니 망국지군이랴 재단하여 복을 입지 않아서는 안된다. 구군의 상복이 되어야 한다고 일컫는 경우는 운위할 바 없음이 더욱 심하다. 道義로 나라를 떠나 타국에서 벼슬하여 새로운 군주를 섬긴 연후에 구군이란 칭호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날 신민들에게 어찌 새로운 군주로 여길 이가 있어 태황제를 구군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先生曰, 太皇帝, 君臨民庶四十餘年, 凡食土

26) 고종 승하를 두고 불거진 이러한 시비는 당대 지식인들의 국가나 민족에 대한 사유 그리고 조선 민족의 앞날에 대한 시각 등 여러 면에서 숙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료를 추적하며 다른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衣毛者, 莫不被其覆育, 雖值傾覆, 其爲吾臣民之君自如也, 不可以亡國之君斷之而不服. 其謂爲舊君服者, 尤甚無謂, 以道去國而仕於他國, 奉事新君, 然後方有舊君之稱, 今日之臣民, 寧有爲其爲新君者, 而謂 太皇爲舊君乎).²⁷⁾

면우는, 고종이 ‘망국지군’이니 복상할 의리가 없다는 주장과 ‘구주’이므로 삼개월만 복상하지는 주장 모두에 대해 단호하게 그 부당함을 논박하고 있다. 태황제가 군림한 사십여 년간 그 覆育의 은혜를 입지 않은 이가 없는데 망국지군이냐 구주라고 하여 복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단에만 머물지 않고 면우는 직접 조카를 국장에 참여하도록 한다. 앞 절에서 살핀 주저나 사려와는 달리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전통적인 유자의 절의를 충실히 되밟고 있는 면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鄭致賢에 답하는 서신에서도 고종을 ‘亡國之君’이라는 네 글자로 제단하여 定案으로 여기는 풍조를 준열히 비판하며 ‘나라를 팔아먹거나 덕의를 등진 자가 아니라면 어찌 君服으로 복상하지 않겠는가(苟非賣國背德者, 寧不以君服服之乎)’²⁸⁾라며 비분강개하는 모습을 재삼 확인할 수 있으니 유럽 일각의 행태에 대해 면우가 품은 반감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우리는 일제의 침탈에 맞선 기의에 대해서 준비없이 ‘直情’에만 휩쓸린 행동은 군부에게는 재앙을 재촉하며 백성들에게는 해독을 끼치는 일이라고 냉소짓는 면우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복상을 두고 벌어진 시비에 대해서는, 은인자중하던 모습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단호한 어조로 논박하고 있다. 이러한 면우를 포개어 읽자면 吾道의 보위가 가장

27) 『侂宇郭先生行狀』,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405면.

28) <答鄭致賢>, 『侂宇先生文集卷之百十七』, (한국문집총간 343권, 214면.)

긴요한 일임을 심중 깊숙이에 내면화하며, 국가의 존망도 品德의 보위보다는 부차적인 고려사항이지만 그럼에도 사직에 대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에는 소홀함이 없는 면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국채보상운동을 경과하면서도 관철되고 있으니 ‘백성된 자라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모아 의무를 돈독히 할 따름이니 중국에 실효가 있을지의 여부는 하늘에 맡길 뿐이라고(爲士民者正宜竭力齊誠, 以敦義務而已, 其終之有實效與否, 且可聽天爾)’²⁹⁾ 하며 국채보상운동을 크게 반기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 지점을 통해서도 역시 향산이나 회당과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으니, 향산이나 회당이라면 중국의 실효 여부에 상관 없이 臣子된 직분으로 혹은 기의의 노선을 선택하거나 혹은 망명의 노선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런데 면우는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는 냉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채보상운동에는 성패는 하늘에 맡기고 신민된 도리를 다하자고 하고 있으니,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추진하는 일의 부작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혹여 면우의 이러한 태도에 위협한 일은 피하려는 보신적인 고려가 개입된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 함방이 강제된 지 2년이 경과한 1912년에 제안 받은 경학원의 강사직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총독에게 서신을 부쳐 ‘대의로 험난하고 선비는 죽일 수는 있어도 굴욕을 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折以大義, 具言士可殺不可屈辱)’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력과 함께 삼일운동 이후 주도적으로 파리장서운동에 관계하고³⁰⁾ 그로 인해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던 면

29) <答安致行 丁未>, 『侑宇先生文集卷之六十三』, (한국문집총간 341 권. 476면.)

30) 이에 대한 경과는 권인호의 『삼일운동과 파리장서 사건의 면우 광종석 평전』을 참고할 수 있다. 권인호, 『삼일운동과 파리장서 사건의 면우 광종석 평전(1)』, 선비문화

우의 모습을 상기한다면 살핀 바의 주저나 사려가 일신의 안위를 걱정한 때문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면우는, 되풀이하여 말하자면 ‘直情’에 휩쓸려 야기될 보다 큰 재앙에 대해 우려하며 한편으로 몸담은 왕조의 부침보다 심원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면우의 삶에서 이지러진 사세를 돌이키려는 분투가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고종에게 진언된 筍子나 上疏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소문에서도 지금까지 확인한 면우의 당대대응이 거듭 확인되니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1904년 곧 갑진년 이월에 올린 상소를 통해 면우의 심증을 살피려 하는데 해당 疏는 전년에 올린 劄子를 통해 ‘정학을 숭상할 것(崇正學)’, ‘민심을 결속할 것(結民心)’, ‘軍制를 바로 잡을 것(定軍制)’, ‘財用을 절약할 것(節財用)’으로 항목화되어 제언된 내용이³¹⁾ 조금씩 변주되며 되풀이되고 일본의 야욕과 러시아의 탐욕을 아울러 경계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유기는 農工에 대해서도 경시하지 않았다며 근본을 세운 뒤에는 實業에도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다. 결국 민생을 안온히 할 방도에 힘쓰고 功業에도 관심을 기울이라는 권면이 담긴 상소문인 바, 그렇지만 필자의 읽기로는 설령 면우의 제언이 받아들여져 현실화되었다 하더라도 당대의 정국에 적실한 대책은 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그런데 해당 상소에 대한 면우의 자궁심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니 상소를 보낸 즈음의 서신에 그러한 내심을 토로하고 있다.

지금 나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만약, 너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려고 독서를 하였기에 救世匡君할 奇謀나 長策이 없는가라고 말한다면 나는 절하고 받

6호, 남명학연구원, 2005. 32면 -- 37면. 권인호, 『삼일운동과 파리장서 사건의 면우 관종석 평전(2)』, 선비문화 7호, 남명학연구원, 2005. 34면 -- 40면.

31) <應 命進言劄子癸卯九月八日>, 『侂宇先生文集卷首』, (한국문집총간 340권. 19면 -- 21면.)

아들이며 죄를 알겠지만 만약 너는 어찌하여 君父에게 말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나는 그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만약 혹시 몸을 뽑아 이르러서 손을 대서 구제할 수 있고 전화위복할 책략이 있다면 사양할 바 없을 것이나, 만약 한번 임금 앞에서 크게 소리내고 물러나온다면 이는 일국에 내 명망을 소문내어 지껄이는 사람들의 구설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일 뿐이니 다만 사사로운 뜻을 이룬 것일 뿐 임금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今使人之責我者, 若曰爾平日讀書何所爲, 而無奇謀長策以救世匡君耶云爾, 則鍾誠拜受而知罪矣, 若曰爾何不盡言於君父也云爾, 則鍾未知其爲何說也. --- 如或挺身赴之, 而有下手拯濟轉危爲安之大策略則亦所不辭, 如欲一番大叫於君前而歸, 則亦不過是聲吾名於一國, 以求脫於呶呶者之口耳, 只成就一箇私意而已, 於君奚補哉).³²⁾

인용문의 前半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면우의 내심은 자신이 온축한 경륜을 집약하여 충언을 올린 이력에 대한 자긍심이 도저하다. 곧 온축한 경륜의 심급이 조야하다고 비판한다면 수긍하겠지만 사직이 누란의 위기에 봉착한 즈음에 유위로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인용문의 후반부에서는 時事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어떠한 困境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虛浪한 언사만으로 虛名을 쌓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면우의 사려깊음이 거듭 확인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유위로운 결실을 맺을 수 없으면서도 목소리만 크게 내며 정작 사려깊게 처신하는 자신을 매도하는 세간의 반응에 대한 미편함도 묻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이미 면우의 주저가 몸보신을 위한 방편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상소문을 통해서도 그 점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다.

32) <答辛士亨 奎燮○甲辰>, 『侁宇先生文集續卷之二』, (한국문집총간 344권, 399면.)

설령 기울어지는 때를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고금의 천하에서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으며 죽지 않은 사람은 없었으니, 원수에게 아첨하여 생존을 도모하느니 차라리 의리를 지키다 죽는 것이 나은 것이며 애매하고 흐릿하게 사느니 차라리 명백하게 죽는 편이 편안하고 또 장쾌하지 않겠습니까(設值傾敗, 古今天下未有國而不亡人而不死者, 與其媚讎而存, 無寧秉義而亡, 與其糶糊而生, 無寧明白而死之爲安且快乎).³³⁾

적에게 아첨하며 연명하느니 ‘秉義’하여 죽는 것이 낫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살아가느니 지닌 義를 명백히 천명하고 죽는 것이 차라리 좋다는 단정적인 언명은 사려깊은 면우의 육성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단호함이 묻어난다. 그렇기에 면우의 주저나 사려가 일신의 안위를 위한 보신적인 차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저러한 결연한 의지가 표명될 정도로 보위하고자 분투하는 대상이 사적이나 국가가 아니라는 점은 다시금 상기되어야 한다. ‘秉義’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당대 집권층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멸망하지 않은 국가는 있지 않았다는 언명에는 국가는 ‘秉義’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경우에만 존재 의의가 있다는 의중도 깔려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인용문에서의 ‘義’는 ‘吾道’나 ‘主理’로 치환될 수 있겠는 바, ‘義’가 본질이며 국가는 그와 견주어질 때에는 부차적인 고려사항이라는 면우의 이해를 다시금 확인케 한다.

33) <甲辰二月疏>, 『俛宇先生文集卷首』, (한국문집총간 340권, 12면.) 해당 부분은 총독부의 검열 때문에 공간 당시 삭제된 부분으로 남아 있던 필사본을 참조하여 보충한 것이다. 실제로 향산집의 경우에도 문집이 간행되고 일제에 의해 휘판이 자행되었다. 일제 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이러한 검열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그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3. 면우 당대대응의 인식론적 基底

우리는 이상에서의 논의를 통해 면우 당대대응의 몇 국면에 대해 살펴 보았다. 당대 대응을 추동케 한 면우의 인식들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훑었지만 이 장에서는 특히 확인한 바와 같은 당대 대응을 가능케 한 면우 내면의 논리에 밀착하여 그 의의를 검토하려 한다. 물론 몇 십년 간에 걸쳐 서서히 나뉘어 가고 있었던 것이 당대 조선의 어김없는 실상이었지만 막상 사직의 종언은 당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터이다. 그러한 정황에서도 면우는 난세에 自靖한 역사 속의 인물을 호명하며 스스로에게나 지인들에게도 그러한 면려를 신칙하고 있다. 이러한 면려에는 면우 인식의 핵심이 내장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차례로 검토하도록 한다.

다만 진덕과 수업이 어디에 쓰이리라는 생각은 아마도 그렇지 아니하니 나라는 멸망할 수 있어도 도는 멸절될 수 없으며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 있더라도 일신은 어지러울 수 없습니다. 당초에 나라를 보존하며 스스로를 면려하지 않았기에 지금 나라가 망해 끝나게 되지 않았으며 세상을 다스리며 가일층 권면하려 하지 않았기에 지금 세상이 혼란에 빠져 막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까닭에 金仁山이나 許白雲과 같은 분들이 송말명초에 즈음하여 모두 산수간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며 오히려 또한 학도들을 모아 강학하고 先聖들의 도를 미루어 밝혀 마침내 온 천하에 주자학을 전수하려 한 것은 아마도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정립하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열어야 하는 것을 스스로 감당할 일로 여긴 것입니다(但以爲進修之何用則恐未然, 蓋國可亡也, 道不可亡也, 世可亂也, 身不可亂也. 其始也不爲國存而自勉, 故今不爲國亡而遽止, 不爲世治而加勸, 故今不以世亂而遂沮. 是以如金仁山, 許白雲諸先生當宋亡元初之日, 俱自靖於丘壑之間, 而猶且聚徒講學, 推明先聖之道, 而卒傳朱子之學於天下蓋爲天地立心, 爲萬世開太

平, 固自是分內也).³⁴⁾

유추컨대 서신을 보낸 문창석이 國恥라는 횡액을 조우하였으니 더 이상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라는 회한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한에 대해 면우는 단호하게 부동심을 유지하라고 신칙하고 있는 바, 나라는 망할 수 있고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 있더라도 道가 망하거나 일신이 어지러워질 수는 없다는 언명을 건네고 있는 것이다. 종전에 검토한 향산이나 기암 그리고 회당의 당대인식과는 판이한 바, 그만큼 내면 의식의 지향점이 고원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신에서는 종묘사직이 종언을 고한 연유에 대한 면우 나름의 진단도 개진되는 바, 국가를 보존하는 데 기울이는 노력만큼 자기 일신을 권면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에 중국에는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힘쓰는 만큼 스스로를 권면하는 데 힘을 쏟지 않았기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³⁵⁾ 이 대목에서 확인되는 면우의 인식에서는 ‘國存’이나 ‘世治’보다 오히려 ‘自勉’이나 ‘加勸’에 강음부호가 주어진다. 계속하여 면우는 자신의 입론을 공고히 하기 위해 金仁山이나 許白雲의 이력을 되짚으며, 나라가 멸망했다 하더라도 자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후학을 계도하여 후일을 기약하는 모습을 당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역할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³⁶⁾ 면우 내면에 대한 이해가 이에 이르면 합방 소식을 듣고 家事

34) <答文士憲>, 『俛宇先生文集卷之五十』. (한국문집총간 341권. 296면.)

35) 이러한 인식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다른 서신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으니 그만큼 면우의 내면을 적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겠다. <答安致行>, 『俛宇先生文集卷之六十三』. (한국문집총간 341권. 477면.)

36) 을사조약 직후 鄭厚允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고려가 원나라가 파견한 누루가치들에게 능욕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인자중한 安文成과 禹易東 같은 이들을 호

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며 賓客을 물리치고 곡기까지 끊은 면우가 ‘유독 영준한 후학이 배우기를 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물리치지 않은(惟後生英秀, 有請業者不拒也)’³⁷⁾ 정황도 뚜렷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면우에게는 ‘吾道’를 보위하며 전승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견될 수 없는 삶의 화두이자 관건이었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당대를 진단하는 두 극단의 선택지를 상정할 수 있겠다. 나라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일반적인 이해가 한 축을 이루는 선택지라면 도가 망실되거나 일신이 혼란에 빠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면우의 이해가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國亡’을 조우하고 ‘後死悲’의 회한에 젖고 있는 회당이나³⁸⁾ ‘苟生’의 상상력이 도저한 기암이³⁹⁾ 전자를 선택했다면 ‘自勉’이나 ‘加勸’을 신칙하는 면우는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金仁山이나 許白雲과 같이 은인 지중하며 후일을 기약했던 인물들을 빈번하게 호명하며 역할 모델로 상정하고 있으니 면우 의식의 심층에는 과감한 결단보다는 섬세한 고려가 주조음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지성사의 전개에서 매서운 절의는 그것대로 현양되며 한편으로 보다 유장한 시선으로 살아간 당대를 해석하며 근본적인 지점에서 해법을 찾으려 한 일군의 흐름에 대해서도 그 의의에 대한 자리매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는 것처럼 철저한 주리론적 이상은 어디에 떼어놓고 國可亡, 道不可亡이라 하고 君可屈, 道不可屈 하므로 以道事君 하려는 도가 왜적 앞에서 꿈쩍도 못한 것이 되었지 않는가. 그의 도는 망국을 시

명하고 있는 바, ‘國存’보다는 ‘自勉’이 면우 인식의 근본항임이 거듭 확인된다.(〈答鄭厚允 丙午〉, 『侂宇先生文集卷之二十六』, (한국문집총간 340권, 477면.))

37) 『侂宇郭先生行狀』,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405면.

38) 즐고, 『晦堂 張錫英論』, 앞의 논문, 46면 -- 49면 참조.

39) 즐고, 『起岩 李中業論』, 앞의 논문, 206면 -- 207면 참조.

인한 도였다고 할 것이다⁴⁰⁾라는 유명종 선생의 면우 이해는 재론의 여지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면우가 존신한 ‘주리론적 이상’이 근왕주의나 국가 지상주의로 치환될 수는 없겠기 때문이다. 더욱이나 광복 이후의 시간적 경과도 상당하니 오늘에는 당대에 제출된 다기한 인식들에 대해 국수적인 시각에서만 평가하고 매도하는 태도는 지양될 필요도 없지 않다.

우리의 면우 읽기가 이에 이르면 망국을 경과한 1911년의 술회인 세상에는 이리저런 구설이 많지만, ‘이에는 말을 장황히 할 필요 없이 일언이 폐지하여 말하자면, 망국의 신민으로 구차히 살아가는 것도 부끄럽고 억지로 죽는 것도 또한 부끄러우니 두문하여 병으로 신음하며 세상과 격절되어 밖에서 혈뜬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일체 패념치 않는다는(此不須多費張皇, 只當一言以蔽之曰亡國之臣民也, 其苟生可恥, 強死亦可吝, 杜門吟病, 與世長謝, 外至之毀譽寵辱, 一切付諸膜外)⁴¹⁾ 대목에서도 어렵지 않게 타성적인 套式語와 진정이 실린 언명을 구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읽어온 우리의 면우 이해가 적실하다면 ‘苟生’이나 ‘強死’가 부끄럽다는 말은 단지 관성적인 언명이며, 면우적인 대응을 타매하는 외부의 혈뜬 소리에 일체 패념치 않겠다는 후반부에 진심이 담긴 것이다. 아래의 글에서도 살핀 바와 상사한 인식들이 제출되고 있다.

옛 현인들이 목숨을 버려 仁을 이룬 것은 바랄 수 없거니와, 자리하고 조우한 곳에서 제각각 정미한 의리를 지닌 것을 한데 아울러 의론할 수는 없습니
다. 文天祥이 柴市에서 피살된 것도 죽음을 탐한 것은 아니었으며, 謝枋得이

40) 유명종, 『조선후기 성리학』, 이문출판사, 1988. 579면. 최영성, 『한국 유학사에서 면우 광종석의 위상』, 남명학 연구 제 27집, 19면에서 재인용.

41) <答李可允>, 『侂宇先生文集卷之四十三』, (한국문집총간 341권. 197면.)

唐石山으로 숨은 것도 삶을 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金履祥이 蘭溪에서 自靖한 것도 죽어야 마땅할 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살아야 마땅함에 산 의리일 뿐이니 저마다 본분을 극진히 하고 계제에 적절히 한 것은 동일하니 이것으로 다르다 여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대는 향리의 布衣일 뿐이니 劉靜修나 許謙이 되면 가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자살한 성현은 없었으며(주자의 말이다) 나라는 망하더라도 道는 망실될 수 없으니 평소의 지조와 옛 학문에 가일층 힘써 天理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昔賢之辨命成仁, 固不敢望, 而亦所處所遇, 各有精義, 不可以一槩論也, 文山之柴市, 非必貪死, 疊山之逃竄, 亦非貪生, 仁山之自靖於蘭溪, 亦非不知當死而死, 當生而生之義爾, 其各盡其分, 各適其遇則同一揆也, 未可以此而差異之也, 至如賢者, 乃林間一布褐耳, 只可爲劉靜修, 許白雲而已. 蓋從古無自殺底聖賢朱子語, 且國可亡也, 道不可亡也, 惟益勵素操, 益篤舊學, 以待皓天之復, 斯爲吾人今日之大義諦, 未知盛意以爲如何).⁴²⁾

제시된 글에서는 목숨을 던져 成仁한 성현의 이력은 감히 바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당면한 처지에 따른 서로 다른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론을 피력하고 있다. 송말원초를 조우하여, 원나라 군에게 피랍되어 옥고를 치르면서도 절개를 굽히지 않다가 柴市에서 피살된 文天祥도 죽음을 탐한 것은 아니었으며 원나라 군대에게 패퇴하여 唐石山에 숨어든 謝枋得의 이력을 두고도 삶을 탐한 것은 아니라는 이해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상황에서 自靖의 길을 선택한 金履祥도 죽어야 마땅할 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살아야 마땅함에 산 의리를 보인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결국 비슷한 정황을 조우한 인물들의 서로 다른 대응은 각기 나름의 분수를 극진히 한 것이며 그러므로 당면한 상황에 대한

42) <答金元淑 庚戌>, 『俛宇先生文集卷之百七』, (한국문집총간 343권, 60면.)

적절한 처신이었음은 동일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경술국치와 그 정황이 유사했던 송말원초를 상기하며 매서운 절의를 보인 인물이나 은인자중한 인물 모두 저마다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편지를 주고받은 金元淑은 일개 포의지사일 뿐이니 원나라가 들어선 뒤 출사하지 않고 隱逸한 劉靜修나 許謙처럼 처신하면 충분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자고로 자살한 성인은 없었다는 주자의 언급을 원용하며 자신의 입론을 옹호하고 있기도 한 바, 면우의 이러한 당대 인식은 동일한 상황에서의 향산의 선택과는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見危授命은 내가 받은 가르침인데 지금 그 때를 얻었다. 그렇지만 죽음에도 또한 분수가 있으니 나는 귀척대신이나 당일 모셨던 신하가 아니고 지방관도 아니며 산중에서 병을 앓아 변괴를 들은 것도 늦었으니 바로 당장 칼 위에 엎드려 죽거나 독약을 마실 필요는 없으니 조용히 自盡하여 遺體를 온전히 하며 마치는 것이 적절하기에 곡기를 끊는다(見危授命, 吾有所受, 今得其時矣. 然死亦有分數, 吾非貴戚大臣, 非當日侍從之臣, 又非封疆之臣, 病廢山間聞變取晚, 則不必當下伏劍飲毒, 當從容就盡全歸遺體故不食).⁴³⁾

향산은 국가가 액운을 조우하면 일신을 초개와 같이 버리라는 家親의 申飭을 回憶하며 국치를 전채두고 自盡의 길을 선택한다. 이때 자신은 현직 관료는 아니니 몸을 온전히 보존하며 죽을 정도의 분수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직 관료가 아니니 유해를 온전히 하며 죽을 정도의 의리가 있다는 향산과 포의의 선비이니 적극적으로 부일을 하지만 않는다면 의리를 지킨 것이라는 면우는, 역시 상정 가능한 당대적 대응의 양 극단으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43) <家傳>, 『響山文集附錄卷之二』, (경인문화사 간, 한국역대문집총서 433권. 582면 -- 583면.)

면우의 인식들을 검토하며 피어오른 단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閔忠正의 自決보다 李響山의 絶食殉國이 몇갑절 결행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故老분들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한순간 목숨을 끊는 결단도 물론 힘든 일이겠으나 절식하며 십수일 이상을 지탱하는 것은 여간한 의지나 강단이 아니라면 힘든 일이라는 이해가 밑바탕에 자리한 말씀이었다. 면우를 검토하면서도 역시 동일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통적인 유자의 삶은, 개체로서의 삶이 아니라 학연과 혼맥 등이 중층적으로 얽힌 사회적인 삶이었다. 또한 당대 유럽에게 명분이나 위신 등은 특정 인물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잣대였으며 그러한 평가는 비단 해당 인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나 학인들에게도 족쇄로 작동하며 삶을 옥죄었던 것이다. 면우는 물론 당연히 이러한 사정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과 후학들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자각하면서도 당대 유럽 일반의 선택과 다른 길을 걷고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내면의 부동심이 강고하지 않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우를 두고, 민족주의는 반역이라는⁴⁴⁾ 도발적인 명제도 제출되고 있는 작금인 만큼 국수적인 잣대로 매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함의에 대해 종전과는 다른 시각에서의 이해도 요청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치며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는 을미사변이나 을사늑약 그리고 합방을 경과하면서도 견결히 부동심을 유지하고 있었던 인물의 당대대응과 그러한 대

44)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1999. 1면 -- 364면.

응을 가능케 한 내면의 인식들을 검토하였다. 면우는 유위로운 성취를 결실 맺지 못할 ‘直情’에 근거한 기의에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으로 사세를 그리치지 않고 자신의 내적 논리에서 수궁되는 일이라면 또한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으며 헌신하고 있기도 하였다. 국가나 사직마저도 부차적인 고려 항목이라는 인식도 확인되는 바, 면우에게는 ‘吾道’의 보위가 절체절명의 소명이었던 것이다.

물론 전통 사회에서도 出仕에 소극적인 儒者를 드물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비단 가파른 정치 현실에 대한 거리 두기 때문만이 아니라 온축한 경륜을 당대에 국한하여 현실화하는 것보다 ‘立言垂後’ 하는 것이 보다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면우의 예에서와 같이 國體나 社稷마저도 부차적일 수 있다는 이해가 피력되는 것은 단연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물론 어느 누구나 자신의 全存在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경우는 있지 않다. 살폈듯이 향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伏劍’하거나 ‘飲毒’하지 않고 절식하여 自盡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와 동일한 정황에서 면우는 ‘附日’은 하지 않고 면려하여 自靖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면우는 국가나 사직과는 대단히 ‘느슨하게’ 묶여 있는 형국이라 하겠는데 근세기 전통적인 지성의 당대 대응 중 단연 이채로운 양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달리 본문에서의 논의를 요약하지 않으며 또다른 ‘중간보고서’를 마치는 바, 전통적 지성의 근세기 대응을 좌표화한다고 할 때 이 글에서의 면우 읽기를 통해 상정 가능한 극단에 자리할 인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 논의를 통해 아직까지는 조야한 좌표의 보완을 다짐하며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郭鍾錫, 『侂宇集』. (민족문화추진회 편집, 『한국문집총간』 340권 -- 344권, 2005.)
- 이만도, 『향산선생문집』. (『한국역대문집총서』 429권 -- 432권, 경인문화사, 1992.)
- 장석영, 『회당선생문집』.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 900권, 경인문화사, 1994.)
- 河謙鎭, 『晦峯先生遺書』. (한국학문헌연구소편, 아세아문화사, 1985.)
- 권인호, 『삼일운동과 파리장서 사건의 면우 곽종석 평전(1)』, 선비문화 6호, 남명학
연구원, 2005. 32면 -- 37면.
- 권인호, 『삼일운동과 파리장서 사건의 면우 곽종석 평전(2)』, 선비문화 7호, 남명학
연구원, 2005. 34면 -- 40면.
- 김도형, 『한주학파의 민족운동: 한주학파의 형성과 현실인식』, 대동문화연구 통권
38호, 2001. 355면 -- 387면.
- 설석규, 『면우 곽종석의 정치철학과 國權恢復 방향』, 남명학연구 제 28집, 2009. 95면
-- 140면.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1999. 364면.
- 줄고, 『起岩 李中業論』, 한국고전연구 제 1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191면
--217면.
- 줄고, 『響山 李晚燾論』,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4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75면 --98면.
- 줄고, 『晦堂 張錫英論』, 한국고전연구 제 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31면 --
56면.
- 최영성, 『한국 유학사에서 면우 곽종석의 위상』, 남명학 연구 제 27집. 2008. 16면
-- 23면.
- 홍원식, 『한국 근현대와 유학: 한국 공자교 운동과 이승희』, 공자학 3권, 한국공자
학회, 1998. 177면 -- 198면.

ABSTRACT

Myeon Woo's Thought and His Recognition of Social Phenomenon

Lee, Taek-dong*

Myeon Woo Kwak Chong-suk was a representative scholar in the 20th century of Jo-seon Korea. It is thought that a study of Myeon Woo's literature is needed for discovering general history of Sion-Korean literature in the 20th century. This view point affected on the development of this essay. By the survey of Myeon Woo's literary collection, it was found that he was introspective and thoughtful.

I think that the study's purpose of that period has been concentrated in people who struggled with an Japanese imperialism. Myeon Woo did not fight aggressively with Japanese imperialism. On the other side, he regarded his cognition and thinking in the same light as traditional cognition and thinking. In the end, based on the study of Myeon Woo Kwak Chong-suk, general characteristics of literary phenomenon by traditional highbrow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also could be examined.

Key Words traditional intelligence, antifeudalism, asylum, self-purification, 20th

논문투고일 : 2010. 10. 15

심사완료일 : 2010. 11. 26

게재확정일 : 2010. 12. 3

* Professor in School of Humanit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